공간과사회 2016년 제26권 3호(통권 57호): 77~114
http://dx.doi.org/10.19097/kaser.2016.26.3.77

특집논문 | **발전주의 도시화와 젠트리피케이션**

‘청년’과 ‘동포’ 사이의 도시재생과 문화예술
구로의 산업적 젠트리피케이션/전치와 그 배후의 장소만들기*

Art and Urban Regeneration in-between ‘youth’ and ‘compatriot’ in Guro: The Place making of the deindustrialized area behind the industrial gentrification/displacement

신현준**

이 논문은 서울 서남부의 한 지역인 구로의 사회공간적 변화와 장소만들기를 고찰한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구로공단’이 실존했던 이 지역에는 저층 공장 건물과 함께 노동계급 거주지가 유기적으로 형성되어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 국가가 후원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적 구조조정과 대규모 전치를 통해 ‘G밸리(디지털단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공간의 극적인 재편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섬유·전자 등의 오래된 제조업은 정보통신산업이나 패션산업 등의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되었고, 신축 재개발된 주거용 및 산업용 고층 아파트가 이 지역의 지배적 경관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 구조조정과 재개발로 인해 이 지역은 상이한 구역들로 분절되었고, 오래된 주민과 더불어 지역운동가, 청년 노동자, 중국동포들이 지역의 상이한 구역의 주요 행위자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예술가와 문화기획자들이 이 지역의 낙후한 지역으로 진입하여 장소의 물리적 보존과 상징적 재구축을 수행하고 있다. 이 모든 변화들은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등의 정부 정책을 통해 조우하고 교차하고 있다. 그 결과 구로는 산업구조 변화, 국내·국제 이주, 지역 운동, 지역 거버넌스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잠재적으로 민감한 지역이 되고 있다. 완전히 탈산업화되어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쇠퇴하고 남루한 채 방기되지도 않은 구로 지역은 동아시아의 구(舊) 공업지역의 개발주의 이후의 도시발전의 흥미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다.

주요어: 구로, 산업적 전치, 젠트리피케이션, 도시재생, 문화예술

* 이 논문(저서)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M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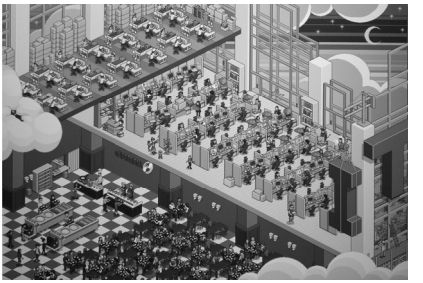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교수(부교수)(hyunjoon.shin@gmail.com)

www.kci.go.kr

1. 들어가며: 하나의 장소, 세 개의 노동

<그림 1>

김해담의 <나의 살던 고향은>


변가영의 <가디단, 픽셀 라이프>

2016년 초에 열린 두 전시를 이 글의 화두로 삼고자 한다. 하나는 2월 27~29일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건물 지하실을 활용하여 열린 <입춘 가리봉전(展)>이고, 다른 하나는 1월 20~31일 금천구 독산동의 금천예술공장에서 열린 <더빨리 더높이 더멀리 그리고 만렙(滿LEV)>[1]이다. 두 전시에서 인상적인 작품 하나씩을 골라 설명하고자 한다.

왼쪽의 작품은 세 가지 형태의 노동을 상이한 각도에서 재현하고 있다. 세 개의 손에는 빌딩, 삽, 바늘이 각각 들려 있고, 그 옆에는 전철을 타고 퀭한 눈으로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 공사현장에서 지게에 힘겹게 벽돌을 지고 있는 건설노동자, 공장에서 미싱으로 봉제일을 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가 그려져 있다. 첫 번째 손은 빌딩의 무게를 가까스로 감당하고 있고, 두 번째 손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면장갑을 끼고 있고, 세 번째 손에는 바늘에 찔린 곳에 일회용 밴드가 붙어 있다. 상이한 세 개의 손은 서로 교차하고 있지만 맞잡지 못하고 있다. 세 가지 노동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지만, 상호연계 없이 분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1) 만렙이란 게임 용어로 '만(滿)'과 '레벨(Level)'을 합성하여 '게임에서 지원하는 최대 레벨'을 뜻한다.

www.kci.go.kr

들 가운데 두 번째 장갑을 낀 손이 중국동포(이하 ‘동포’라고 약함)의 것이라는 사실은 이 지역에서는 상식에 속한다.

오른쪽의 작품은 하나의 건물의 세 개의 층을 재현하고 있다. 위층은 봉제공장, 중간층은 게임업체, 아래층은 구내식당이다. 위층에는 여성이 대다수인 중년 노동자들이, 중간층에는 남성이 대다수인 청년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아래층에서는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식당을 관리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점을 지나칠 수 없다. 이 전시를 기획한 J1은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노동의 현안은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히면서, 이 작품이 가상의 현실이 아니라 내의업체로 유명한 B사의 실제를 재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이한 시간성을 갖는 노동의 역사적 형태가 하나의 장소에 다층적이고 입체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 층에 배치된 노동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기회는 건물의 구조에 의해 차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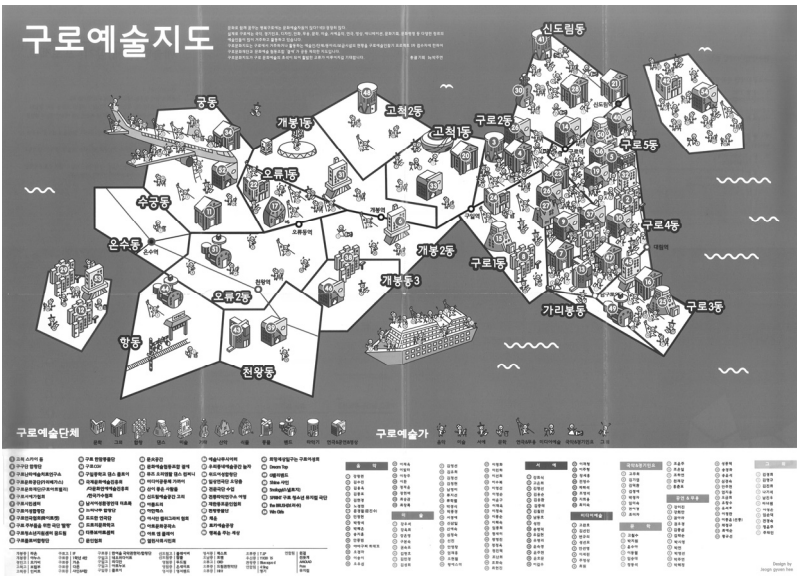
이 작품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도 현재적으로도 ‘노동’과 밀접히 연관된 곳이고, 그 점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문화예술도 다른 곳과는 상이한 성격과 특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위 전시를 기획한 두 예술가 집단의 이름에는 문화, 예술, 생산, 공단 등의 단어가 조합되어 있다. 이들 외에도 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문화예술과 연관된 실천을 수행하는 개인과 단체는 양적·질적으로 풍성하다. 생산과 노동의 장소로 기억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이 지역에서도 문화예술의 생산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의 대상은 위 예술 작품이나 활동이 재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다르지 않다. 즉, ‘구로’라고 명명할 서울 서남부의 한 지역의 공간 변화와 장소 만들기(place-making)[2]가 이 글의 대상이다. 이 글은 장소만들기의 다

2) 장소와 장소만들기에 대해서 이 글이 취하는 견해는 Cresswell(2004)와 Lombard (2014) 등에 따른다. 이들에 따르면, 장소란 고정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

www.kci.go.kr

<그림 2> 한 문화예술단체가 작성한 <구로예술지도>



한 문화예술단체가 작성한 '구로예술지도'. 세간의 편견과 달리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활동이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지도에서는 구로구의 각 행정동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글이 다루는 장소는 안양천 동쪽의 구로구 일부에 국한한다(출처: 곁애).

양한 층위에서의 다양한 실천들 가운데 국가 정책이나 기업 투자 등의 거시적 실천들 못지않게 계급, 시대, 성별, 민족 등으로 구분되는 여러 집단들의 미시적 실천들에 주목한다.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과 연관된 실천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서울 및 한국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소만들기 과정에서 문화예술 실천이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장소만들기와 문화예술 실천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고 문제적이라는 것도 이 글의 기본적 가정이다.

그 초점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지역에 대한 다소 긴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이론적 개념과 방법을 소개하고(2절), 구로의 공간 변화와 장

람들과 환경들 사이의 풍부하고 복잡한 상호작용, 즉 행위자들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천에 의해 만들어진다.

www.kci.go.kr

소 만들기를 거시적 및 미시적 층위에서 각각 논한다(3절과 4절). 그 뒤 이 지역의 문화예술 행위자들의 실천과 그들의 주관적 인식을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5절). 이를 위해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수행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할 것이다. 인터뷰는 문화예술 행위자들 외에도 오래된 주민, 공무원과 준(準)공무원, 지역 활동가, 도시재생 업체 등을 망라한 20여명의 인물들과 수행되었고, 널리 알려진 경우를 제외하면, 단체명과 인명은 영어 이니셜의 약자로 처리했다.

2. 젠트리피케이션 논의에 대한 (자기)성찰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학계와 언론계에서 집중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3] 그 논의가 문화예술의 실천을 통해 활성화된 동네, 이른바 ‘뜨는 동네’ 혹은 ‘핫 플레이스’에서 상가 임대료가 상승하여 기존 세입자가 밀려나고 지역 공동체와 연결망이 파괴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이른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과 그에 따른 세입자, 주로 임차상인의 전치(displacement)가 현재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현안이다.

이런 경향은, 젠트리피케이션에 고유한 문화적 취향과 미학적 성향, 간단히 말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미학[4]을 충분조건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3) 한 권위 있는 저서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원론적 정의를 소개하면 “도심의 노동계급 지역의 중간계급 거주용도 및 상업용도로의 변환”(Lees, Slater and Wyly, 2008: xv)이다.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 그로 인해 이 개념이 ‘혼돈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쟁이 이루어졌다. 이 글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이론의 역사적 전개를 요약·정리하지는 않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신현준·김지윤(2015) 및 신현준·이기웅 편(2016)에 의존한다. 또한 국내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논의가 대중화되는 양상에 대한 조사로는 이선영(2016: 211~214)의 논의가 상세하고 정확하다.

www.kci.go.kr

서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개발을 젠트리피케이션의 이론적 틀로 설명하는 국제학계의 지배적 경향과는 그 초점이 다소 상이하다. 이 개념이 한국에서 대중적 그리고 공식적으로 소통하고 순환하는 과정에서 그 지시대상이 조금 협소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논의가 상업을 포함하여 주거와 산업(업무)을 망라하는 공간적 변화를 통합적·포괄적으로 조망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5)]

그런데 구로처럼 '뜨는' 일이 (아직) 없는 (구)공업지역에서 진행되는 공간변화에 대해서 젠트리피케이션 개념과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는 단지 한국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샤런 주킨(Sharon Zukin)과 크리스 햄닛(Chris Hamnett) 등이 뉴욕과 런던에서 공업용 건물이 중간계급의 거주용으로 전환되는 이른바 로프트 생활(loft living)을 젠트리피케이션의 주요한 라이프스타일과 습속(habitus)으로 분석했지만(Zukin, 1989; Hamnett and Whitelegg, 2007), 그런 개조 과정이 어느 도시, 어느 지역에서나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서양 도시에서조차 쇠퇴한 이후 재생의 조짐이 없는 구(舊)공업도시들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은 조건적이지 일반적이지 않다.[6)] 즉, '뜨는'이라고

4) 토마스 말루타스(Thomas Maloutas)에 의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의 세 개의 '핵심적 참조점'은 젠트리피케이션 미학, 중간계급의 현존, 탈공업화(Maloutas, 2002)다. 이 점에 대해 로레타 리스, 신현방, 에르네스토 로페스-모랄레스(Ernesto Lopez-Morales)는 이 세 가지는 "맥락적 부수현상"(Lees, Shin and Lopez-Morales eds., 2015: 7)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글은 '젠트리피케이션 미학'이 젠트리피케이션의 '필요조건'은 아닐지 몰라도 '충분조건'으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 미학이란 '도회적 진정성의 소비'(Zukin, 2008)라고 간단하게 정의해 둔다. 젠트리피케이션 미학은 종종 '쿨'(cool)', '힙(hip)', '그리티(gritty)', '훵키(funky)' 등의 형용사를 수반한다.

5) 한 예로 서촌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분석할 때 이 장소 인근의 내수동·사직동 일대와 부암동·평창동 일대의 변화를 통합적·포괄적으로 조망하려는 초보적 시도는 신현준·이기웅 편(2016)의 1장을 보라.

6) 크리스 햄닛(Chris Hamnett)에 의하면 디트로이트(Detroit)나 클리블랜드(Cleveland)처럼 미국의 오래되고 쇠락하는 도시들에서는 "시 정부가 도회적 부

www.kci.go.kr

표현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징후가 어느 도시, 어느 지역에서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공업도시 혹은 공업지역의 경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젠트리피케이션을 재개발 혹은 재생의 정책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다(Cameron and Coaffee, 2005; Mathews, 2010; Mathews, 2014).[7] 그렇지만 그 정책이 반드시 기대한대로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장소에 기반한 문화예술의 실천이 필연적으로 도시재생 정책과 연관되어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져온다고 선험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네를 ‘띄우기’ 위한 정책적 실천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기대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감 혹은 공감의 문제가 있다. 이 글의 대상이 되는 구로의 경우 이제까지의 사회공간적 변화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해석과 평가가 그 장소의 실제 행위자들에게 공감받는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문제다. 오히려 이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과정을 묘사하는 기술적(descriptive) 개념이라기보다는 미래 발생할 수도 있는 과정을 예상하는 규범적(prescriptive) 개념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이제 막 시작된 가리봉동의 도시재생 정책[8]을 총괄하고 있는 한 교수는 “지역재생의 부작용으로 기존 주민이 떠나고 대체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된다는

패(urban decay)를 방지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적고 있다(Hamnett, 2015: 19).

7) 캐머런과 커우피는 영국의 게이츠헤드(Gateshead), 배니사 매튜스는 캐나다의 토론토(Toronto)의 쇠퇴한 공업지역의 재생을 사례로 연구하고 있다.

8) 가리봉동은 2015년 11월 서울시가 지정한 13개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도모델’ 가운데 하나로 창신숭인, 해방촌, 성수 1, 2가동, 신촌동, 암사1동, 장위동, 상도4동과 더불어 ‘근린재생 일반형’에 속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2015: 79～82)를 참고하라. 한국에서 재개발과 재생은 전자가 물리적 철거를 전제하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론적 차이를 갖는다. 그렇지만 그 효과 면에서 양자가 그리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김지윤(2015)을 보라.

www.kci.go.kr

점을 예상하고 있다(배웅규, 2015: 32).

그래서 이 글은 구로 지역의 공간적 변화를 젠트리피케이션의 기존 이론을 통해 확인하고 검증하기보다는 그 변화를 여러 층위에서 포괄적으로 논하면서 그것이 젠트리피케이션 및 도시재생 논의에 대해 가지는 시사점을 제출하고자 한다. 이는 문화예술의 실천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전조(前兆)를 이룬다거나, 그와 반대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항한다고 선험적으로 전제하지 않고 그 구체적 전개와 배치를 경험적으로 논한다는 것을 뜻한다.

3. '구로공단'에서 'G밸리'로의 산업적 전치와 공간 재편

<그림 3>

1980년부터 1995년까지 구로구의 위치(왼쪽)와 1995년 이후의 구로구의 위치(오른쪽). 참고로 현재의 구로구의 일부인 '시흥군 동면 구로리(九老里)'가 서울에 편입된 것은 1949년이고, 그때부터 1980년까지는 영등포구에 속했다.

우선 이 글이 대상으로 하는 장소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에서 '금천구 독산동'과 '구로구 가리봉동'이라고 구분한 사실에 주목해 주기 바란다. 두 곳 사이의 거리는 2km 정도로 그리 멀지 않고 주변 근린의 장소감도 그리 다르지 않지만, 행정구역으로는 상이한 구(區)와 상이한 동(洞)에 속해 있다. 이는 1995년 구로구로부터 금천구가 분리

www.kci.go.kr

된 효과인데,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느껴질 정도로 긴 설명이 요구된다.

간단히 말하면, 이 글이 대상으로 하는 장소는 2001년부터 공식적으로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줄여서 ‘디지털단지’라고 불리는 지역 및 그 배후지다. 이곳은 1965년 기공되어 1967년에 준공된 수출산업공단, 즉, ‘구로공단’의 후예지만, 앞서 언급한 행정구역의 변화의 효과로 인해 구로구에 속한 일부(1공단)는 ‘구로디지털단지’로, 금천구에 속한 다른 일부(2공단과 3공단)는 ‘가산디지털단지’로 불린다. 일상생활에서 두 곳은 각각 ‘구디단’과 ‘가디단’이라는 약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공업’이라는 기호가 ‘디지털’이라는 기호로 대체된 것에서 상징하듯, 탈공업화의 의식적 실천이 2000년대 이후 지역의 공간변화를 상징한다.

장소와 관련된 명칭의 변화를 시기순으로 정리하면, 2000년 구로공단이 서울디지털단지로, 2004년 구로공단역(지하철 2호선)이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2005년 가리봉역(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가산디지털단지역로 개명하면서 현재의 명칭들이 확고해졌다. 그 과정에서 1995년 이전의 가리봉동이 ‘구로구 가리봉동’과 ‘금천구 가산동’으로 분단되었다는 점도 지적해 둔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구와 동의 구분은 행정구역상의 구분만큼 선명하지는 않다. 실제로 1980년 구로구가 신설되기 전에는 영등포구가 이상의 지역들을 모두 포괄했고, 그래서 이곳은 지금도 서울 서남권이라는 비공식적 하위권역(subregion)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상의 복잡한 공식적·비공식적 구분을 무화할 수 있는 하나의 용어가 이른바 ‘G밸리’고, 이때 G는 ‘구로’와 ‘가산’의 로마자 표기에서 공통된 첫 문자를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대상인 ‘구로’라는 장소는 공식적 행정구역을 따라 형성된 지역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1995년 이전 구로구에 속한 ‘공단과 그 배후지’라는 범위를 설정하면, 이 장소는 현재의 구로구와 금천구에 걸쳐 있고 각 구의 일부 해당 구역을 합친 것이다. 즉, 구로구와 금천구의 나머지 지역은 이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 장소가 개발주의 시대 국가주도 산업화의 제도, 실천, 습속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

www.kci.go.kr

<그림 4>

G밸리의 약도. 남부순환로를 경계로 1단지가 위치한 곳 대부분은 구로구 구로동, 2단지와 3단지가 위치한 곳은 금천구 가산동이다.
출처: ≪한겨레≫ 2012.1.8, "화려해진 옛 구로공단……노동자 삶은 되레 후퇴."

그래서 '생산과 노동의 장소'라는 강한 정체성을 생산·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구로'라고 표현하는 장소는 행정구역상의 범위와는 별도로 과거의 역사라는 지층(stratum)[9] 위에서 구축되고 변환되는 과정, 실천, 사건을 말한다는 점을 밝혀 둔다. 물론 법정동인 '구로동'이 구로의 물리적·문화적 중심을 이룬다는 사실도 확인해 둔다.

이렇게 확고해 보이는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이곳이 급격한 공간 변화를 경험해 왔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 가운데 두 가지 대규모 재개발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둘의 성격은

9) '지층'에 대한 아이디어는 들뢰즈·가타리(1987/2001), 특히 3장 '도덕의 지리학'에 의존한다. 들뢰즈·가타리의 철학적 개념을 짐멜의 사회학적 개념과 연관시키고, '토대'나 '경관'과는 구분하여 "생성적, 과정적, 운동적"이라고 해석한 시도로는 김예란(2016: 194~195)를 보라. 즉, 지층이란 행위자의 실천을 규정하거나 제약하는 구조적 토대와 달리 변화와 생성이 표출되는 동태적 영토다.

www.kci.go.kr

상이하지만 형태는 유사하다.

하나는 이미 소개한 디지털단지(G밸리)의 ‘아파트형 공장’의 신축을 통한 재개발이다.[10] 이는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이곳에서 번성한 섬유·전자 등의 경공업이 사양화·노후화되면서, 이곳의 산업시설이 국내적·국제적으로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통적 의미의 공업(제조업)과 공장 노동자가 대량으로 전치(displacement)되면서 1990년대 말 이후 산업구조의 ‘고도화’, ‘첨단화’라는 이름의 국가정책의 후원을 받는 구조조정(restructuring)이 발생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곳의 물리적 정경의 변화에서 드러나는데, 간단히 말하면 ‘붉은 벽돌의 굴뚝 공장’이 ‘푸른 유리의 아파트형 공장’으로 대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변화에 대해 한 기업 연구소는 2007년의 보고서에서 “지난 10년 사이 구로단지에 입주한 기업 수가 무려 14배나 증가했고 취업자 수도 3.7배나 확대”(박용규·송영필·전영옥, 2007)되면서 약 15만 명이 일하는 ‘도시형 비즈니스 파크’로 변모했다고 평했다. 최근에는 업체의 성격이 IT와 벤처기업 중심이라는 이유로 “지식기반산업형 첨단 산업단지의 성공 모델”(김번욱, 2014: 35)이라고 상찬되고 있다. 말하자면, 아파트형 공장의 신축이라는 방법의 기업형 부동산 (재)개발에 의해 대규모의 산업적 전치(Curran, 2007)[11]가 발생한 것이다.

다른 하나의 대규모 재개발은 구로구 북서부의 신도림역 인근에서 발생한다.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지나는 신도림역 일대에는 1990년대까

10) 이 변화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한 박용규·송영필·전영옥(2007)과 김번욱(2014) 외에도 구양미(2002),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2012; 2015) 등 여러 연구가 제출되어 있다. 이 글은 이상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필자 나름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11) 위니프레드 커런은 뉴욕 브루클린(윌리엄스버그)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산업적 전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지만, ‘산업적 젠트리피케이션(industrial gentrifi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윤희연과 엘리자베쓰 큐리드-헬킷(Yoon and Currid-Halkett, 2015)인데, 이 연구는 뉴욕 첼시에서 문화산업 부문 내부에서의 전치를 분석한 점에서, 오래된 공업의 전치를 다루는 이 글의 대상과는 다르다.

www.kci.go.kr

지 종근당, 한국타이어, 동아산업, 삼영화학, 대성연탄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공장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생산시설들이 전치·재배치된 이른바 브라운필드(brownfield)에 대기업 건설사인 대림의 주도로 주거용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것이다.[12] 즉, 이곳은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경우로, 그 점에서 서울 다른 지역의 아파트재개발의 대표적 형태인 합동재개발과는 상이한 경우에 속한다. 이 재개발의 정점은 2007년 대성연탄 부지에 록폰기힐을 벤치마킹했다고 알려진 디큐브시티가 준공된 것이다. 실제로 록폰기힐을 설계한 모리 도시기획과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ushman & Wakefield)가 컨설팅을 맡고 미국의 저드(Jerde)와 한국의 삼우가 설계를 맡은 이곳은 주거, 업무, 상업 외에 호텔과 컨벤션, 그리고 각종 문화 및 연예시설을 갖춘 서울 서남권 최고의 복합개발단지로 확립되었다.

이상의 두 개의 대표적인 재개발을 통한 공간적 변화가 단지 건조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계급구조의 재편(class remake)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수반한다는 데는 논란이 없을 것이다. 특히 신도림의 경우 '신축 젠트리피케이션(new-build gentrification)'(Davidson and Lee, 2005; Shin and Kim, 2016)이라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교적 최신 형태의 한 사례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유형의 젠트리피케이션에서는 오래된 주택의 개량의 형태를 취한 고전적 젠트리피케이션과 달리 장소에 기반하고 행위성이 주도하는 습속(habitus)이 부재하다는 점도 위 연구들에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거주용이든 산업용이든 재개발된 아파트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거대도시 서울에 전형적인 직주불일치(job-housing mismatch)에 기반한 생활양식을 가진 직장인에 가깝다. 그래서 신도림과 G밸리는 중산층 직장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복제하려는 의식적 전략을 통해 만들어진

12) 신도림동 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상세한 정보로는 김경민·박재민(2013)의 3장을 참고하라. 단, 그들의 분석은 아파트 재개발이라는 '한국형'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에 무비판적이고, '가리방동 쪽방촌'에 대해서는 낭만적이기까지 하다는 점에서 이 글의 논조와는 차이가 많다.

www.kci.go.kr

인위적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신도림 아파트 단지의 주민 대부분은 여의도와 강남 등지로 통근하는 직장인과 그들의 가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단지 장소 애착이 없다기보다는 그와는 정반대의 감정과 지향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이곳에서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A는 “신도림은 사실 본인들이 구로구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며 “젊은 엄마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뭉치는 것 밖에는 커뮤니티가 조성되지 않는 공간”이라고 말해 주었다. 신도림이 “구로의 강남”이자 “목동과 같은 생활권”이라는 점은 구로2동에서 카페 갤러리를 운영하는 L도 확인해 주었다. 말하자면 한국의 표준적인 중간계급, 이른바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의 규준과 특유의 문화적 코드가 새로운 주민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13] 즉, 이곳은 사회적 혼합(social mix)을 배제하는 자족적이고 폐쇄적인 장소로 만들어지고 있다.

G밸리의 아파트형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구로에 장소애착을 갖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아파트 단지의 중산층과 공통적이다. 그렇지만 이들 대다수의 계급적·세대적 성격이 아파트 단지 주민과 동일하지는 않다. “건물이 화려하게 바뀌었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오히려 후퇴했다”(≪한겨레≫, 2012.1.8)라는 보도에서 드러나듯, 이곳의 노동자들은 ‘첨단산업’이라든가 ‘창조계급’이라는 수사가 무색하게 ‘저임금·장시간 노동’이라는 성격, 즉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계급적 정체성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 노동자’라는 범주로 호명되고 있다. 즉, ‘청년’은 ‘계급’의 은유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G밸리는 구로공단으로부터의 단절 못지않게 연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인터뷰이 가운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K1과 J1은 이들 청년 노동자에 대해

13) 이선영(2016: 215~216)은 한국에서 주거 재개발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론화한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한국에서 재개발 이후 이주한 이들의 가구구성과 인구학적 특징이 전형적인 중산층 거주지역의 그것과 별 차이가 나지 않”거나, “가옥주의 직업과 소득 측면에서 서구의 젠트리파이어와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지 못함을 발견”하는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특징을 ‘젠트리피케이션 미학’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가에 대하서는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www.kci.go.kr

"1980년대 미싱공들과 똑같다"는 말에 이어 "태반이 비정규직"이고 "퇴근시간도 없다"는 점에서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은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주민'도 '유권자'도 아니다.[14]

계급적·세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축 아파트 중산층 주민과 G밸리의 청년 직장인 모두 장소에 기초한 실천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런 특징은 이들에게 '젠트리(gentry)'라는 호칭이 적절한가 여부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구로에 더 많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장소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행위자는 이곳 외부에서 발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해서는 병풍처럼 고층 빌딩이 둘러싼 저층 건조환경을 가진 장소를 찾아가야 한다. 이곳이 재개발로 인한 공간변화의 무풍지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효과하에서 독특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4. 구로의 오래된 행위자들의 장소 (다시)만들기

1) 변화된 장소, 불변의 행위자들

기존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용도변경을 포함하는 대규모 재개발이 가져온 경관의 변화는 그 이전 시기의 경관과 비교하면 명백해진다. 함축적으로 말한다면, '구로공단'이 실존했던 시기 업무(노동), 주거, 소비 등으로 유기적 관계를 가진 장소가 상호연계를 상실한 몇 개 구역으로 분단(segmentation)된 것이다. 앞서 본 신도림 아파트단지, 구로·가산 디지털단지, 그리고 그 나머지 사이의 연계는 이전 시기에 비해 거의 없어졌거나 훨씬 약해졌다. 즉, 국가의 후원과 기업의 주도로 수행된 부동산 재개

14) 디지털 시대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편(2013)의 1장과 2장 및 박준도(2014)를 참고하라.

www.kci.go.kr

발은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이곳의 주요 행위자였던 노동자를 비롯한 구주민의 일상 문화의 흔적을 소멸시키고 그 기억을 삭제한 것이다.[15]

이런 일련의 변화는 구로구의 공식적인 장소 브랜딩이 ‘디지털 구로’라는 사실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디지털이라는 수사는 시공간을 초월·압축하는 이동성이라는 의미작용을 통해 과거의 장소성을 부정하려고 한다. 2007년 12월 서울에서는 세 번째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구로아트밸리라는 공공 문화시설을 조성한 맥락도 다르지 않다. 구로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인물인 S1은 이 점에 대해 “구로구는 기존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형태보다는 발전에 중심을 두고, 그게 주민들도 원하는 형태라고 판단”했다고 아쉬운 논조로 말했다. 그에 의하면, 정책 기조에서 “기존의 구로공단의 잔재를 유지하고, 그걸 다시 재생하고 활용하는 부분은 없었”다는 것이다. 즉, 최근까지 구로구의 문화정책은 구로의 사회문화적 성격이 이미 변했거나 혹은 앞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여 기획·실행되어 온 것이다.

그렇지만 구로의 사회공간적 변화를 이제까지 언급한 두 개의 대규모 개발로 환원시킬 수는 없다. 얼핏 보기에 구로는 재개발된 거주용 및 산업용 고층빌딩(아파트)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안양천과 도림천이라는 자연환경, 그리고 세 개의 지상 철로(경인선, 경부선, 2호선)라는 인공환경으로 인해 이 지역의 물리적 중심인 분지(盆地) 같은 곳은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고립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많은 저작들에서 ‘구로공단의 배후지’(서울역사박물관, 2013)라고 부른 곳이다.

15) 구로공단 역사 연구에서 일종의 공백이었던 1990년대의 변화, 주로 ‘소멸’에 대한 연구로는 김원(2015)을 참고하라. 그렇지만 구로공단 시기의 많은 것이 사라지기는 했어도 그 축적된 시간성을 ‘소멸’로만 분석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실제로 디지털단지 내부에도 저층 공장이 잔존하고 있을 뿐더러, 단지 외부에는 비공식 봉제공장들이 다수 전치되어 있다. 금천구를 대상으로 이를 분석한 글로는 최영숙(2014; 2016)의 분석과 통찰을 참고하라.

www.kci.go.kr

이 분지 같은 곳은 행정동으로는 구로2동과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 지역으로, 재래시장(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가리봉시장)의 주위에 형성된 주거지와 상권이라고 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이곳은 사방으로부터 밀려오는 개발의 압력을 받아 곧 사라질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합동재개발 방식을 통해 아파트가 여기저기 재개발되어 있지만, 가까운 과거, 즉, 구로공단 시대의 흔적과 기억을 아직도 강하게 간직하고 있다.[16] 구로라는 장소를 만드는 과정과 실천을 다룰 때 이 저층 주거지 및 상권은 신도림 아파트단지와 구로·가산 디지털단지보다 더 많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곳이 이전 시기의 노동운동, 그 후의 지역운동, 그리고 최근의 문화예술 실천이 중심적으로 전개되어 온 부지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이곳은 지방정부, 개발업자, 금융업자 등의 거대 행위자가 결합하여 추진한 인위적 장소만들기와는 상이하게 장소에 기반하고 행위성이 주도하는 습속과 실천이 배치·전개되고 있다.

이 구역에는 '쪽방촌'을 비롯하여 이전 시기에 형성된 저층 주거지, 그리고 전통적 상권인 재래시장(구로시장과 가리봉시장)이 물리적 경관의 주요 구성요소다. 이 동네의 기원은 구로공단이 조성되기 이전인 1961년 농민의 토지를 박탈하여 간이구호주택을 지어 도심의 판자촌에서 축출된 철거민을 수용한 사건(≪동아일보≫, 1962.10.15; 장세훈, 2014)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후 복잡하고 다양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해 현재와 같은 주거지 및 상권이 형성된 것이다.

이 구역이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공장 노동자들의 주거와 상업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 곳이라는 점, 그 결과 산업적·주거적 전치가 발생한 1990년대 뚜렷한 쇠퇴의 징후를 보였다는 점 등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그렇

16) 디큐브시티와 테크노마트는 신도림역의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신도림동이 아니라 구로동(구로5동)에 속한다. 신도림동의 경우 주상복합 아파트단지를 벗어나면 신도림 안골이라고 불리는 빈곤하고 노후한 동네에 작은 공장들이 산재해 있다. 마지막으로 구로1동(구일동)은 1998년에 아파트단지로 조성되었고, 구로4동에도 꽤 많은 아파트가 재개발되어 있다.

www.kci.go.kr

지만 이곳이 그때부터 '도회적 부패(urban decay)'나 '공동화(hollowization)' 과정을 밟았던 것은 아니다. 「압구정식 소비 물드는 가리봉」이라는 당시 한 잡지의 보도처럼 이곳은 '가출 청소년'으로 대표되는 하위계급(underclass)에게 주거 및 소비의 공간을 제공했다(≪시사저널≫ 217, 1993.12.23). 즉, 공단 노동자가 대량으로 전치된 상황에서도 저렴한 주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존재했고, 그 결과 이곳은 이들을 위한 주거와 상업의 장소로 재편되었던 것이다.

이 지역이 결정적으로 쇠퇴한 것은 역설적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되었다가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가리봉동 일대는 2003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래 전면 철거 뒤 '카이브(KAIV: Korea Advanced & Innovative Valley)'라는 이름의 주상복합타운으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실행에 들어간 바 있다(지충남, 2014). 가리봉시장과 더불어 이 동네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구로시장도 2004년 현대화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상복합타운으로 재개발하는 계획을 시도한 일이 있다. 그렇지만 두 경우 모두 개발업자의 재정상태 악화, 재개발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의 갈등,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 침체 등으로 인해 2013년 백지화되었다. 즉, 이 동네가 노후화되고 유휴화된 것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약 10년 동안 정책에 의해 재개발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개별적인 주거환경 정비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그 역은 아니다. 즉, 서울에서 재개발 계획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동네에 발생하는 전형적 과정이 발생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갈등들은 지금도 해소되지 않은 채 내재해 있다.

이런 상태에서 장소에 기반한 실천을 강하게 수행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주민'이라고 정위(定位: positioning)하는 행위자들은 크게 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재래시장의 상인을 비롯해서 이곳에서 오랫동안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잔뼈가 굵은 지역 유지들이다. 최소한 30년 이상 이곳에서 주거와 생업을 영위해 온 사람들은 소수의 토박이 대지주를 제외하면 호서지방과 호남지방에 연고를 두고 있다. 그 연고로 인한

www.kci.go.kr

정치적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기간 동안 축적해 온 경제자본과 제도권 정치와 연관된 사회자본을 공유하면서 '터줏대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년에 접어들은 연령으로 인해 이들의 문화자본은 다분히 잠식된 상태지만, 이들은 속된 말로 "동네에서 방귀 좀 뀌는 사람"(K3)로 인식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1980년대 구로공단의 공장을 기반으로 한 노동운동의 후예들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시민운동(NGO운동)이라는 사회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한 사람들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체를 하나만 꼽는다면 1997년 설립된 구로시민센터인데, 이 센터는 노동조합 운동, 진보정당 운동, 고등학생 운동 등의 구(舊)사회운동을 지역에 기반한 풀뿌리운동으로 전환시켰다. 그 전환 과정을 간략히 묘사하면, '노동운동가'가 '지역활동가'로 변모되는 과정이었다. 이미 20년 정도 지역에서 거주한 경험과 사회운동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 자본을 배치하면서 주민 혹은 내부인의 정체성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소 예상치 못한 주민이 존재하는데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대량 이입한 중국동포(조선족)다. 동포 가운데 상대적으로 성공을 거둔 층은 이 지역을 떠나 재이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구로는 아직도 중국동포가 이주 초기에 머무는 곳이라는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이곳은 주거와 상업을 포함하여 중국동포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이 집적되어 있다. 이들은 구로·가리봉을 '재생' 혹은 '재활성화'시킨 주요한 행위자로, 재래시장의 60~70%의 수요를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공들이 빠져나가서 슬럼화되는 것을 막아 준 것이 중국동포"였다는 K1의 발언은 이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의 실감을 잘 보여준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외국인'이자 단기 세입자라서 주민으로 공인받지 못하고 있지만, 국적을 취득한 동포들 경우는 주택과 상가 등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명실상부한 지역 주민으로 정착하고 있다.

종합한다면, 2010년대 중반인 현재의 구로는 오래된 주민들에 더하여 한편으로는 '중간계급 신주민'과 '청년 노동자'라는 국내적 이주자(inter-

www.kci.go.kr

nal migrants),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동포’라는 국제적 이주자들이 조우하면서 새로운 사회문화적 성격을 만들고 있다. 이는 과거 공업지역이라는 동질적이고 단순했던 장소가 이질적이고 복잡한 장소로 변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철거를 전제로 하는 재개발이 무산되면서 이와는 상이한 형태의 도시재생의 정책과 실천이 착수·수행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의 공간 변화와 장소 만들기가 더 복잡한 양상을 띨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앞서 언급했듯 이 복잡한 양상에서 이 글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화예술 실천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이 지역에서 어떤 문화예술 실천이 존재해 왔는가에 대한 언급을 생략할 수는 없다. 즉, 이전 시대의 노동운동과 그 이후의 지역운동과 연계된 문화예술 실천들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노동운동/지역운동과 문화예술 실천

구로 지역의 자생적 문화예술 실천을 논할 때 먼저 언급해야 할 단체는 앞서 언급한 지역운동단체인 구로시민센터다. 현재 구로시민센터장을 맡고 있는 K3에 의하면 “단체가 자리를 잘 잡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문화강좌”였다고 말하면서, 당시에는 “선착순 마감을 하면 1,000명 넘게 지원했다”고 회고했다.[17] 이 문화강좌를 통해 공통된 취미를 기초로 한 동호회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구로문화제>를 기획·실행하는 자양분이 되었다고 그는 전했다. 이 동호회들 가운데 풍물, 연극, 기타, 사

17) 공식적 자료에 의하면, 구로시민센터 문화위원회의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요구를 실현하면서 폭넓은 주민들과의 접촉점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지역문화 형성을 추진”(구로시민센터, 2007: 26)하는 것이고, 노동, 여성, 청년, 문화 등 4개의 사업단위로 이 목적을 실현시켜 왔다. 구로시민센터를 포함한 구로의 지역운동에 대해서는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2015)의 3장 「구로지역 노동단체의 위기와 대응: 지역운동 전환의 역사·정치적 맥락」(91～156쪽)을 참고하라.

www.kci.go.kr

진 등의 문화예술 장르는 1980년대 사회운동, 특히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의 동아리에 그 기원을 갖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구로시민센터에서 나타나는 지역문화운동의 일반적 성격은 오래된 문화단체인 MG에서도 잘 드러났다. 1998년에 결성되었다는 이 공간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인 S3는 1990년대 중반까지 구로의 '문화판'이 어마어마했으며, 풍물패와 노래패를 비롯한 지역의 문화단체가 수십 개를 넘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MG의 취지를 아래처럼 설명해 주었다.

> 자생적 문화, 즉, 자본이 만들어내거나 상업적인 문화로 만들어진 것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노동자든, 일반 서민이든, 학생이든 같이 공유를 하고, 그 속에서 정치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삶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S3 인터뷰).

그와 더불어 S3는 '한벗독서회', '노민문연', '민족굿판 사람사랑' 등의 단체들, '고척체육센터 사건', '기륭 싸움', '열사문화제' 등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1980~1990년대 구로지역에서 노동운동과 연계하여 그와 그의 동료들이 진지하게 수행했던 문화적 실천들에 대해 길게 설명해 주었다. 문화공간의 현재의 모습은 얼핏 보기에 '아마추어 밴드의 연습실' 정도로 보이지만 이전 시기의 실천의 흔적들이 지층들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지금도 음악 강습, 마을 콘서트, 록페스티벌 등 지역문화 행사를 기획·실행하고 있다. 만약 이런 실천이 지나간 시대의 유물 정도로만 보이는 사람은 지난 20년 동안의 시간의 변화에 잘 적응하여 과거를 망각한 사람일 것이다. 달리 말한다면, 이곳은 20세기의 마지막 20년 한국에서 '운동'과 관련되어 축적된 시간성을 가장 잘 간직한 구로의 성격을 함축적으로 보여 준다.

이는 단지 몇 개 단체가 시간의 흐름을 버티고 살아남았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구로는 '지역 커뮤니티(공동체)'라는 말이 부적절하지 않은 서울의 몇 안 되는 장소들 가운데 하나다. 이는 지역시민단체인 구로시민

www.kci.go.kr

센터 외에도 지역 언론 ≪구로타임스≫, 지역에 뿌리를 둔 생활협동조합 아이쿱(iCoop), 지역에 소재한 성공회대학교 등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상생활에 뿌리박은 커뮤니티를 발전시킨 사실에서 드러난다. 이런 특징은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곳으로 활동의 터전을 옮긴 예술가와 문화기획자에게 [구로는] “시민단체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S2) 곳이자 “지역 활동가가 워낙 많은 곳”(Y) 등으로 실감되고 있다.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든, 커뮤니티라는 용어를 사용하든,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강인하다”(S2)는 것이 또 하나의 실감이다.

이런 자생적 네트워크 혹은 커뮤니티는 2010년대 이후 마을만들기와 사회적 경제라는 서울 시정부의 정책 방향과 접속하여 탄력을 받고 있다. 2014년 이후 두 정책은 각각 마을공동체생태계조성지원사업단(약칭 ‘마생단’)과 사회적경제경제특화사업단이라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민관 협치를 물질화하고 있다. 말하자면, 구로는 마을만들기와 사회적 경제라는 현 서울시장의 정책 기조에 잘 적응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 모범적 장소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혹시 이런 커뮤니티와 네트워크가 그 특유의 ‘강고함’으로 인해 신참자들에게 일종의 심리적 진입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 마생단에 참여하는 젊은 문화기획자 S2는 “너무 ‘올드’하다”라고 함축적으로 전해 주었고, 마을기업 대표 J2도 “시민단체가 너무 늙었고 노쇠했다”라는 데 동의했다. 이는 단지 시민단체의 물리적 연령의 문제가 아닌데, 또 한 명의 문화기획자 A는 자신의 견해를 아래처럼 표현했다. 그녀의 발언은 구로의 문화예술 장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 사이에 정서적 결연(結緣)과 이념적 긴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제가 운동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고, 그런 말을 약간 돌려서 포장시켜서 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그 분들이랑 무언가를 하면 조금 불편할 때가

www.kci.go.kr

있어요. 문화예술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엮으니까 약간 부담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은 구로에서 문화예술이 장소 만들기에서 하나의 주요한 매개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다시 말하면, 노동운동 및 지역운동과 연계된 문화예술 실천은 구로 지역에 하나의 지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 절에서는 이 변화와 생성을 표현하는 문화예술의 행위자들 및 그 실천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네 개의 단체 혹은 개인을 선정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상이한 문화적·정서적 결(grain)들이 구로 지역의 장소만들기에 대한 상이한 지향을 함축·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들은 난폭하게 (재)개발되지 않은 틈새에 자리를 잡고 장소를 물리적으로 보존할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재구축하는 문화정치를 수행하는 존재들이다. 이들의 결이 다양하다는 것은 이런 보존과 재구축이 다층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도 덧붙인다.

5. 변화하는 구로의 새로운 문화예술 실천, 그 경합과 협력

1) 협동조합 GMD

GMD는 K1이 2013년 그녀의 동료들과 함께 구로2동에 터를 잡은 문화예술협동조합이다. 그녀는 서울의 다른 곳에서 고등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고등학생운동이 조직화된 곳으로는 구로가 유일해서” 구로로 이주한 뒤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노동운동가의 삶을 살았다. 그 후 구로시민센터를 중심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했고, 지금도 그곳의 ‘이사(理事)’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화관련

www.kci.go.kr

사업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견하여, 뒤늦게 영화아카데미를 수학하면서 영화감독의 길을 걷게 되었다. 가리봉동의 삶을 재현한 그녀의 영화아카데미 졸업작품인 단편영화 <가리베가스>(2005)는 독립영화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

GMD는 이런저런 이유로 지역활동에 휴지기를 가졌던 그녀가 2013년부터 다시 지역 기반의 활동을 재개하면서 시작되었고, 2015년 협동조합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K1을 포함하여 다섯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곳의 작업은 “영상적으로 기록하는 프레임, 전시나 퍼포먼스를 하는 프레임, 리서치 형태의 도시연구라는 프레임”을 통해 구로라는 장소에 대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9월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과거 구로공단의 모습을 재현한 퍼포먼스, 그리고 서두에서 언급한 <입춘 가리봉>의 전시는 그녀와 GMD가 기획하고 실행한 작품들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K1은 오랫동안 이곳에서 생활해 온 경험이 신체에 새겨진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나에게 구로는 늘 ‘핫’하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단지 역설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구로가 “사랑스럽고, 다이내믹하고, ‘영화적’이고, 콘텐츠가 무한하다”고 말하면서, 장소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였다. 이 애착은 때로 ‘외부에서 온 예술가’에 대한 그녀의 부정적 평가를 낳기도 한다. 자신은 “이 지역의 정통성, 노동성, 역사성에 기반해서 현재를 재생시키는 작업을 하고 싶은데, 외부에서 온 예술가들은 예술 쪽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 그녀가 다른 예술가와 협동적 작업을 수행한 뒤의 소회다. ‘정통성’이라는 말이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나의 질문에 대해, 그녀는 “용어를 잘못 쓴 것 같기는 하다”고 양보했지만, 어떤 “투박한 중심은 존재한다”고 답했다.

아마도 그녀는 외부에서 파견된 예술가들이 구로공단의 복잡하고 풍부한 역사에 대해 진지한 조사나 공부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작업의 대상으로 삼고 가볍게 건드렸다가 떠나버리는 모습에 대해 실망하는 것 같았다. 일시적 파견이 아니라 이곳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한

www.kci.go.kr

편으로는 “신선한 바람의 측면이 있어서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젠가 떠나가겠지”라는 생각을 지우지는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렇지만 그녀의 말을 배타적인 영토적 주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당하지는 않다. 실제로 그녀는 자신의 작업에 “외부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단, ‘외부’라고 편의적으로 표현한 행위자들도 동질적이지 않다는 점, 때로는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흐려지는 점 등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아직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K1에게 도시재생에 대해 묻자 양가적 반응이 돌아왔다. 한편으로는 “살기 힘들 정도로 낙후되어 있어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를 떠나가는 사람[중국동포 세입자들]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그녀는 도시재생의 물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사이의 모순에 대해 지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도시재생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다”는 발언에서 보듯, 그녀는 정부정책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이는 아마도 그녀가 ‘운동’의 관점에서 문화예술 실천을 계속 수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 마을기업 GA

‘파견되었다가 떠나버린 예술가’라고 K1이 표현한 실례 가운데 하나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이 후원하는 파견예술인 프로그램으로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가리봉 복작복작 골목 프로젝트>다. 이 프로그램의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는 구일동의 아파트단지 상가건물 2층에 마을기업 GA를 운영하는 J2이었다. 가리봉동의 집에 문패를 만들고,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벤치와 컨테이너에 페인트로 색을 입혔던 이 작업에 대해 J2는 “성과는 그렇다 할 만한 것 없었”다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중국동포에 대한 마음은 좋게 품고 나왔다”는 성과를 말하면서 “예술가들이 이런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J2는 구로·영등포 일대에서 성장한 뒤 대학교에서 문예창작과를 졸업

www.kci.go.kr

하고 시인으로 활동하는 인물이다. 그녀의 문단 선배들은 1988년부터 2006년까지 존속했던 ‘구로노동자문학회’와 연관된 인물들이라서, 그녀 역시 1980~1990년대 노동운동과 끈을 가지고 있다. 현재도 앞서 소개한 사회적 경제의 민관협치의 중간지원조직의 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GA는 [구로의 풀뿌리 네트워크의] 정중앙에 들어가 있다고 봐도 좋다”고 시원하게 말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앞의 인용문에서 나타났듯 지역의 시민운동의 정서에 대해 우호적 비판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가 보기에 구로는 “일을 나눠서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핵심적인 사람들의 주도 하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곳이고, 그 정서를 “무뚝뚝하고 ‘꽁’해 있다”고 표현했다. GA의 성격이 “기존의 시민운동과 신참 청년활동의 중간에 있는 것이냐”라는 나의 질문에 동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마을기업은 아직은 경제적 자립의 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아 보였지만 지역과의 접속은 탄탄했다.

GA가 자리를 잡은 곳은 구일동의 아파트단지이지만 그녀가 자신의 작업을 수행하는 곳은 가리봉동을 포함한 저층 주거지와 상권이다. 그런데 이곳에 대한 그녀의 장소애착도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묻자 “가리봉에 들어가서 그 공간에서 장난을 치면 충분히 재미난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주인[건물주]를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공간이 매력 있어서 낭만적으로 접근했다가 건물주를 만나는 순간 모든 상상이 파괴되는 신기한 체험을 했다”고 말해 주었다. 최근 그녀의 작업은 지역의 오래된 주민을 묘사하는 ‘인물 매거진 작업’과 ‘어르신들의 자서전 작업’이라고 소개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그녀의 장소 애착은 ‘구로공단의 역사’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강한 장소애착을 가진 J2는 K1에 비해서도 도시재생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중국동포 다 내몰자’는 것이고, 철거만 없지 재개발과 똑같다”는 것이 그녀의 냉철한 인식이었다. 즉, 그녀는 도시재생이 젠트리피케이션, 즉, 구주민의 전치를 초래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다.

www.kci.go.kr

이처럼 '마을만들기에는 우호적이지만 도시재생에는 비판적인' 태도와 정서는 이 지역의 활동가 유형의 예술가들이 대체로 공유하는 것이다.

3) 예술공장 TKA

TKA는 구로디지털단지의 고층빌딩 구역이 끝나는 지점에 남아 있는 오래된 저층 공장건물의 3층에 자리한 예술공간이다. 그 건물의 벽에는 뉴욕풍의 애니메이션 벽화가 그려져 있어서 주변 건물들의 느낌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공간은 입주 작가들의 작업과 상근 기획자의 사무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1층에는 갤러리 카페가 영업을 하고 있고, 2층에는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이 건물은 일종의 복합용도(mixed-use) 건물로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

디렉터인 40대 남성 J3은 한국에서 미대를 졸업하고 작가 생활을 하다가 뉴욕 브루클린에서 5년 정도 체류하면서 작가 생활과 더불어 레지던시와 오픈 스튜디오 등을 경험한 뒤 귀국하여 2012년에 이곳을 만들었다. 예술공간이 구로에 자리를 잡은 동기는 무엇보다도 이곳의 독특한 분위기가 작용했다. 그는 "가리봉동 같은 구로구의 골목길들은 예술가들이 정말 좋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브루클린 같은 곳'을 찾은 것이냐?"라는 나의 질문에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런데 이런 미학적 동기와 다른 실리적 동기가 작용했다. 그는 TKA의 취지가 "직장인과 기업인에게 문화나 예술이라는 부분을 가까이서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디지털단지의 기업인을 만나서 매칭 사업을 하고, 한국 메세나에 접촉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일련의 '펀딩'이 그것이다. 공간의 임대료 수준에 대해서도 그는 솔직하게 답해 주었다. 즉, 그의 관심은 예술보다는 사업이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J3은 자신의 일이 '문화사업'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J3과 TKA에 대한 지역 문화예술가들의 평판이 우호적이지는

www.kci.go.kr

않았다. “예술가라기보다는 사업가 마인드로 기업 펀딩 받아서 해외유학파들 유치하는 일을 하고 있다”(K1), “사실 구청장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Y), “예술인 입장인데도 상업적인 건수에 집착한다”(J2)는 등의 반응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혹은 문화활동가의 평이었다. 가장 종합적인 평은 “구로지역에 있다는 것뿐이지 구로를 위해서 활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마을활동가 S4의 평이다.

TKA는 나름의 방식으로 지역과 접속하고 있다. 2015년 10월 ‘가리봉시장과 함께 하는 TKA 예술가들’의 이름으로 <지상낙원+구로피아>라는 전시를 개최하여 시장 상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자평했다.[18] 이런 일련의 작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정책과 어울려 보였는데, 실제로 J3은 “어떤 일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불러만 주면 저는 당장 가서 참가할 의향이 있다”면서 정책과 접속할 의지를 보였다. 즉, 예술을 매개로 하는 도시재생이 구로구에서 실현된다면, TKA는 가장 적극적 행위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그 도시재생정책이 사회적 관계와 소통 네트워크의 복원이라기보다는 물리적 외관과 경제적 기능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확률이 더 높다는 점이다.

아이러니는 그의 문화사업조차 ‘젠트리피케이션의 순환’에 진입하는 징후가 보인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 TKA가 소재한 공장 건물 1층은 ‘갤러리 카페’로 사용되고 있는데, 나는 이를 TKA가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했지만 사실은 건물주가 용도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즉, 예술가가 진입하여 예술적 환경이 조성되면 그 환경을 상업화하는 시도가 발생하는 일반적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J3가 청년이나 동포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단지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18) 이는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가리봉시장의 한 상인 C는 이 기획에 대해 “잘하는 일이라고 반겼다”고 말하면서 “‘야, 이거 뭔가 세상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www.kci.go.kr

4) 청년프로젝트 GYD

GYD는 한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가 지역(혹은 마을)과 접속하려는 여러 프로젝트들 가운데 하나다. 대표를 맡고 있는 Y는 대학을 졸업한 뒤 위 법인이 주최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로를 자신의 활동 장소로 선택했다. Y는 예술가이기도 한데, 서두에 소개했던 J1이 기획한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목록에서 Y의 이름이 발견된다. 그래서 이 소절에서는 Y와 더불어 J1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고자 한다. J1은 한 사회적 기업에서 활동하다가 2011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곳과 연을 맺었다.

GYD의 성격에 대해서 Y는 "다중적이고 다층적인 조직. 문화예술 기반이기도 하고, 문화기획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회자되고 있는 조직"이라고 복잡하게 소개했다. 그 활동은 세간에서 '청년 활동'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범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그리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 청년활동은 구로시장 안에 비어있는 점포들이 방치되어 있던 곳을 '청년상회 특화골목'으로 전환시켰는데, 이곳의 상점들은 인근의 오래되거나 평이한 곳들과 달리 젊은 감각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곳들이다. 즉, 이들은 '구로구보다는 마포구에 어울리는 곳'으로, 구로구에서 이례적으로 '쿨'한 곳을 창출해 놓았다.

이런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었던 것에는 구청 및 상인회와 교섭이 이루어져서 2년의 보증금과 1년의 임대료를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즉, 이 프로젝트는 지방정부, 지역유지, 청년활동 사이의 복잡한 교섭을 거쳐 서로의 실리가 맞아떨어진 산물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구로에 자리를 잡은 동기는 실리적 동기를 넘어서는 복합적인 것이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정서적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구로가 "누가 봐도 풍족한 곳이 아니고 결핍이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곳이라는 Y의 말에서 보듯, 이들에게는 '청년'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J1의 경우

www.kci.go.kr

도 구로가 “나의 처지를 객관화시켜서 보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이곳의 이야기는 ‘헬조선’의 모든 청년들의 이야기”라고 답했다.

Y는 “놀러오고 싶은 구로 말고, 살고 싶은 구로까지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는 이상(理想)까지 피력했다. 그런데 이런 이상과 달리 그들이 현실에서 마주치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의외로 지역 주민 가운데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분들’과 ‘노동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한 감성적 불편함으로 드러났고, 이는 “성차별을 일삼고 젠더 감수성이 없다”는 Y의 발언과 “저희 세대와 대화를 나누거나 인정하려는 생각이 없다”는 그녀의 동료 J1의 발언으로 요약된다. ‘젊은 여성’이 친숙함, 안전성, 편안함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요인은 물리적 경관의 황량함이라기보다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이었고, 거기에는 성별, 세대, 계급 등의 구분의 선이 복잡하게 가로지르고 있었다. 실제로, Y는 구로구로 이사하지 않은 채 마포구에 거주하면서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고, J1은 3년 동안 구로구에 살기를 시도하다가 마포구로 돌아간 상태였다.

행위자들이 정서적 곤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은 도시재생의 정책적 도구의 하나로 적절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보였다. 그렇지만, 이들의 활동은 도시재생 정책의 프로그램에 들어있지 않을뿐더러 본인들도 그것을 원치 않고 있었다. “정책도 이상하고 수행하는 주체도 이상하다. 맨날 땅주인이랑만 만나서 뭘 어쩌려는지 모르겠다”(Y)라든가,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쓸모없는 것들, 아니면 쓸모가 있다고 해도 누구의 쓸모인지 모를 것들이 생길뿐”(J1)이 그들의 반응이었다.

이들은 아직까지는 ‘청년노동자’나 ‘중국동포’와 긴밀하게 접속할 계기를 확보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들의 활동 기간을 고려할 때 이를 지금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 단, 이들이 겪고 있는 곤란은, 공공, 혁신, 대안 등의 이름으로 수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일련의 정책들 및 그와 연계되어 배출된 활동가들의 지배적인 문화적 코드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접속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www.kci.go.kr

이제까지 언급한 상이한 문화예술 단체들의 실천에는 이곳의 역사와 현재가 상이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이는 이 장소의 미래에 대한 상이한 전망과 연관되고 있다. 각각의 실천이 지역의 오래된 행위자들과 상이한 방식과 정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교섭하고 있는 점, 그로 인해 이들 사이에 정서적 차이와 취향의 경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차이와 경합이 적대적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고 있다. 더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곳에서 강제로 쫓겨날 위험에 처해있지 않다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구로에서의 문화적 생산이 양적으로 풍부하고 질적으로 독특하다는 점이다. 문제는 지방정부(구청)를 포함한 이 지역의 오래된 행위자들(혹은 이해당사자들)의 역학관계의 배치와 전개를 따라 이들의 실천과 자원이 상이한 의미를 부여받고 상이하게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이상의 논의를 요약한 뒤 정리하고자 한다.

6. 나가며: 청년과 동포 사이의 도시재생

196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역사의 지층으로 인해 구로의 공간변화를 젠트리피케이션과 연관 짓는 것은 어색해 보인다. 2000년대 이후 구로 지역에서 발생한 재개발은 한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의미화된 과정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2010년대 중반 이후 도시재생 정책도 서울의 다른 지역(예를 들어 해방촌이나 창동)과 달리 문화예술을 정책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도 구(舊)공업지역을 주거용 및 산업용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한 효과가 그 나머지 지역에 미치는 압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 지역에 대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어휘가 대중적으로 확산된다면, 저층 주거지와 상권을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의 중산층 주민과 G밸리의 직

www.kci.go.kr

장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부합하는 문화적 편의시설이 대량으로 생기는 순간일 것이다. 그럴 때 젠트리피케이션은 주거, 산업, 상업을 포괄적으로 망라하면서 동네 성격의 전반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도시재생 정책의 전개를 검토하면서 상상해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현재 가리봉동의 도시재생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인물은 “공단의 새로운 계층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저렴한 양질의 주거를 확충”하는 것을 언급하는 한편으로 “기존의 저렴한 주거비로 거주하는 계층이 재생 이후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배웅규, 2015: 31~32). 이와 더불어 그가 기존 주민의 전치, 즉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다.

정책이 실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전치 없는 재생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예단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미래에 도래할 수도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의 강도는 각 행위자들이 처한 위치에 따라 그 강도가 달랐다. 한 청년활동가 Y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쫓겨나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말했고, 중국동포 A는 “임대료가 오르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년’과 ‘동포’는 정책 담론에서는 상충관계의 존재로 가정되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았다. 이는 아마도 두 집단이 라이프스타일과 습속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라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공유하기 때문일 것이다.

도시재생정책에 참여했고 지금은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민관협치조직의 책임을 맡고 있던 지역활동가 K2는 “도시재생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이미지 개선이 된 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나름의 정의를 한 뒤, “차라리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역설적 심정을 피력했다. 그는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을 구분했지만 양자가 연관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이런 인식은 구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적 성격을 가진 실천을 수행하는 활동가들에게 지배

www.kci.go.kr

적이었다. 즉, 그의 발언은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조차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곳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제까지 이곳의 도시재생은 "주민들[집주인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그의 인식이 맞다면 도시재생 정책이(그의 정의대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낳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를 따르는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다양한 갈래의 문화예술의 실천들을 선별적으로 포섭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결국 이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본격적으로 실감되는 순간이 온다면, 기존 건물주의 이해에 기초하여 오래된 세입자인 '동포'를 희생하고 새로운 세입자인 '청년'을 배려하는 도시재생 정책이 구체화·물질화될 때일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문화예술의 실천들 대부분이 지역에 뿌리박은 활동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특별한 반(反)젠트리피케이션 투쟁 없이도 젠트리피케이션의 난폭한 전개가 저지 혹은 지체되고 있다. 이제까지 다른 지역에서 반젠트리피케이션 투쟁이 지역 주민과의 연대에 곤란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로의 사례는 향후의 운동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구로의 사례는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구(舊)공업지역에서 문화예술 실천, 국내·국제 이주, 지역 거버넌스 등이 복잡하게 얽힌 장소만들기의 흥미로운 사례다. 이른바 '탈공업화'가 노동의 소멸이 아니라 재산업화를 통한 노동의 재편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면서, 노동의 다양한 형태들과 연관된 공간적 실천들은 구로를 다시 한 번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장소로 만들고 있다.[19] '구로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아직 본격적으로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이런 민감성의 지표로

19) 현장 연구 과정에서 젊은 예술가들과는 또 다른 결을 가진 젊은 활동가를 만날 수 있었는데, 이들은 이 지역의 청년이나 동포의 노동의 현안을 조사하고 이들의 삶을 지원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들의 활동, 그리고 그 활동이 기반하는 청년이나 동포의 노동, 주거, 여가의 실태 등에 대한 포괄적 조사는 추후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www.kci.go.kr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접수일: 2016년 8월 1일
심사완료일: 2016년 9월 6일
게재확정일: 2016년 9월 20일
최종원고접수일: 2016년 9월 22일

www.kci.go.kr

Abstract

Art and Urban Regeneration in-between 'youth' and 'compatriot' in Guro: The Place making of the deindustrialized area behind the industrial gentrification/displacement

Hyunjoon Shin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ocio-spatial changes and the place-making of Guro, a southwestern district of metropolitan Seoul. Home to the old 'Guro Industrial Complex' in the 1960~90s, the area used to be consisted of organically formed working class neighborhoods alongside low-rise factory buildings. Since the early 2000s, the Complex has obtained a new name — 'G Valley(Digital Complex)' — through a state-sponsored, corporate-led industrial restructuring project that caused displacement on a massive scale. Old manufacturing industries of textile and electronics gave way to new industries such as ICT and fashion, which located themselves in newly built high-rise apartment-style factory and residential buildings. This restructuring split the district's residential area into different segments, each populated by old-time residents, community activists, young 'creative' industry workers, and Korean-Chinese returnees. In particular, artists and cultural entrepreneurs that moved into these run-down parts of the neighborhood have recently contributed to the physical preservation as well as symbolic reconstruction of the town. All these changes are interwoven in the name of urban regeneration and community building, which consists of both top-down policy and bottom-up activism at the same time. Thus Guro has become politically and culturally sensitive again because of the intersection between industrial mobility, international migration, community activism, and local governance. Neither deindustrialized/gentrified nor dilapidated/deserted, Guro is an interesting place that may betray something unique about East Asian urban regeneration.

www.kci.go.kr

Keywords: Guro, Industrial displacement, gentrification, urban regeneration, art and culture

www.kci.go.kr

참고문헌

구로시민센터. 2007.『지역에서 희망을: 구로시민센터와 지역시민운동』. 구로시민센터.

구양미. 2002.「구로공단(서울디지털산업단지) 산업구조 개편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39, 1~48쪽.

김경민·박재민. 2013.『리씽킹 서울: 도시, 과거에서 미래를 보다』. 서해문집.

김번욱. 2014.「서울디지털단지 50년의 변천과정과 성과」. ≪산업입지≫, 54, 34~41쪽.

김예란. 2016.「탈주와 모방—1970년대 청년문화의 감각과 정동 실천」. ≪언론과 사회≫, 24(3), 178~224쪽.

김 원. 2015.「구로공단이라는 장소의 소멸: 90년대 구로공단의 '재영토화'를 중심으로」. ≪한국학 논집≫, 59, 99~174쪽.

김지윤. 2015.「'봉제마을' 창신동: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의 엇박자」.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14, 125~157쪽.

박용규·송영필·전영옥. 2007.『'구로공단' 부활의 의미』. 삼성경제연구소.

박준도. 2014.『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환경 실태 2011-2013』. 노동자의 미래.

배웅규. 2015.「가리봉지역 도시 마을만들기를 위한 재생 노력과 과제」. ≪건축≫, 59(6), 29~36쪽.

서울시. 2015.『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편. 2013.『가리봉동: 구로공단 배후지에서 다문화의 공간으로』. 서울역사박물관.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2012.『디지털 시대의 구로공단』. 한국학술정보.

_____. 2013.『디지털 시대의 노동자들』. 한국학술정보.

_____. 2015.『디지털 시대의 구로지역』. 한국학술정보.

신현준·김지윤. 2015.「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재생 혹은 개발주의 이후 도시공간의 모순과 경합」. ≪사이間 SAI≫, 19, 221~246쪽.

신현준·이기웅 편. 2016.『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푸른숲.

이선영. 2016.「닐 스미스와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한국」. ≪공간과 사회≫, 56, 209~234쪽.

장세훈. 2014.「구로 수출산업공단 조성의 재해석」. ≪대한지리학회지≫, 49(2), 160~177쪽.

지충남. 2014.「재개발사업이 재한조선족 집거지에 미친 영향—가리봉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53, 235~277쪽.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1987/2001.『천 개의 고원』. 새물결.

www.kci.go.kr

최영숙. 2014.「구로디지털단지(a.k.a. 구로공단) 괴담: 창의도시에서 누락된 생산의 손들」. 구정연·임경용·청개구리제작소 엮음.『공공도큐멘트 3 다들 만들고 계십니까?』. 미디어버스, 12~26쪽.

_____. 2016.「구로공단: 전신성형, 그리고 유리빌딩의 환청」. 신현준·이기웅 편.『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푸른숲, 323~363쪽.

Cameron, S. and Coaffee, J. 2005. "Art, gentrification and regeneration: From artist as pioneer to public arts." *European Journal of Housing Policy*, 5(1), pp. 39~58.

Cresswell, T. 2004. *Place: a short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Curran, W. 2007. "From the frying pan to the oven: Gentrification and the experience of industrial displacement in Williamsburg, Brooklyn." *Urban Studies*, 44(8), pp. 1427~1440.

Davidson, M. and Lees, L. 2005. "New-build 'gentrification' and London's riverside renaissance." *Environment and Planning*, 37(7), pp. 1165~1190.

Hamnett, C. 2015. "Gentrification: its history, forms, causes and consequences." in The 7th Seoul Art Space International Symposium: Artist, Gentrification and Urban Regeneration, 27 Nov 2015, 19~27,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Hamnett, C. and Whitelegg, D. 2007. "Loft conversion and gentrification in London: From industrial to postindustrial land use." *Environment and Planning A*, 39(1), pp. 228~234.

Lees, L., Shin, H. B. and López-Morales, E.(eds.). 2015. *Global Gentrifications: Uneven Development and Displacement*. Bristol: Policy Press.

Lees, L., Slater, T. and Wyly, E. 2008. *Gentrification*. New York & London: Routledge.

Lombard, M. 2014. "Constructing ordinary places: Place-making in urban informal settlements in Mexico." *Progress in Planning*, 94, pp. 1~53.

Maloutas, T. 2012. "Contextual diversity in gentrification research." *Critical Sociology*, 38(1), pp. 33~48.

Mathews, V. 2010. "Aestheticizing space: Art, gentrification and the city." *Geography Compass*, 4(6), pp. 660~675.

_____. 2014. "Incoherence and tension in culture-led re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8(3), 1019~1036.

Shin, H. B. and Kim, S.-H. 2016. "The developmental state, speculative urbanisation and the politics of displacement in gentrifying Seoul." *Urban Studies*, 53(3), pp. 540~559.

Yoon, Heeyeun and Elizabeth Currid-Halkett. 2015. "Industrial gentrification in West Chelsea, New York: Who survived and who did not? Empirical evidence from 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 *Urban Studies*, 52(1), pp. 20~49.

www.kci.go.kr

Zukin, S. 1989. *Loft Living: Culture and Capital in Urban Change*. 2nd ed.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_____. 2008. "Consuming authenticity." *Cultural Studies*, 22(5), pp. 724~748.

인터뷰

A(30대 여성, 문화예술기획자)
C(60대 남성, 상인)
J1(20대 여성, 예술가·문화기획자)
J2(30대 여성, 마을기업가)
J3(40대 남성, 예술가·문화기획자)
K1(40대 여성, 영화감독)
K2(30대 남성, 사회적 기업가)
K3(40대 남성, 지역활동가)
S1(50대 남성, 문화예술기획자)
S2(20대 여성, 예술기획자)
S3(40대 남성, 지역문화활동가)
S4(40대 여성, 지역활동가)
Y(20대 여성, 예술가·문화기획자)

www.kci.go.kr